

# 고입선발고사, 내신 성적으로 대체

전라북도교육청이 2017년 달라지는 교육정책 및 사업 등을 발표했다.

올해 고입 선발고사가 폐지됨에 따라 중학교 3학년의 2018학년도 고입 선발시험은 내신 성적으로 선발하게 된다.

내신 성적은 1, 2학년 50%, 3학년 50%가 반영된다. 내신반영은 전기고의 경우 3학년 2학기 1차 고사까지이며, 후기고는 3학년 2학기 2차 고사까지이다.

선택형 평가 방식을 탈피하고 과정 중심의 참학력 향상을 위해 중학생 학력 진단평가가 전면 개편된다.

기존의 중학교 1학년 진단평가(1회 실시)와 3학년 도학력평가(4회 실시)가 달라진다.

중학교 3학년 평가는 2회(3월 중순, 9월 중순)에 걸쳐 학력 진단평가의 방식으로 개편하고, 중학교 예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던 진단평가는

## 2017년 도교육청, 달라지는 교육정책·사업

3월 중순에 2학년, 3학년과 함께 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한다.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의 역사교과서 보조교재는 집필진들의 계속적인 수정·보완과 자료 및 심의위원의 검토를 실시하여 2018학년도 1학기에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안전교육 체험시설이 확충된다. 올해 전북교육청은 고창 삼인종합학습장을 안전교육 7대표주관과 연계된 안전체험 시설로 리모델링하여 학생들에게 안전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영광원지력발전소와 인접한 고창 삼인종합학습장을 생애주기별 체험 중심 안전교육 체험기관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이 방사는 누출사고 대비 안전 체험 및 지진대피, 화재 대피 생활안전(가스 전기 등), 응급처치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 학교'가 도입된다. 유치원 입학은 원하는 보호자가 시간과 장소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여 신청하고, 유치원은 공정하게 선발된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학부모의 불편 해소와 교원의 업무를 덜어주게 된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농어촌 교육 특구사업이 추진된다.

정읍, 김제, 완주, 진안, 고창, 부안 지역이 농어촌 교육 특구로 지정돼 3년간 운영된다.

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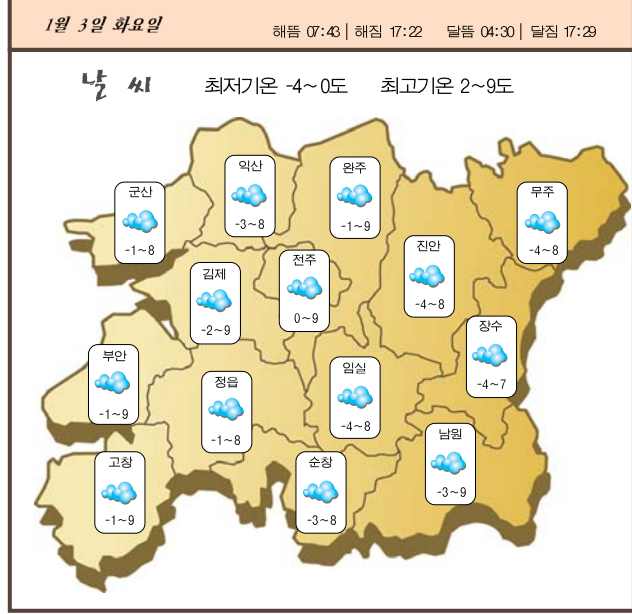
교육전문직원 전형 방법이 개선된다. 올해부터 응시 횟수가 3회로 제한되며, 응시자격도 보직교사 경력 2년(유치원 1년) 이상인 자로 제한된다.

일반직 공무원 인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반직 4급 승진 임용 제도를 변경해 운영한다.

올해 하반기 4급 승진 심사부터 적용되며 승진 대상자에 대해 개별 면접과 현장 평가를 실시해 서기관으로서의 적격 여부 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이 외에도 지역별로 배치된 회복적 생활교육 전문가들이 학생 생활교육 전반에 걸쳐 회복적 생활교육이 되도록 지원하며 과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중점학교 확대 운영, 과학교사 수업사례 운영, 과학실합실 안전 환경 조성 등에 지원이 확대된다.

정혜은 기자



## 전주시, 글로벌 경쟁력 갖춘 인재양성 박차

전주시가 전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는데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전주시는 2일 우석대학교 전주캠퍼스에서 2016년 겨울방학 전주지역 어린이 영어캠프 입소식을 가졌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지역 어린이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원어민과 합숙생활을 통해 영어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 영어캠프를 진행하고 있으며, 겨울방학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어린이 영어캠프는 이날 입소식을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이번 캠프에는 영어 듣기와 읽기, 쓰기 및 원어민 인터뷰를 통해 선발된 전주지역 초등학교 4~6학년 재학생 114명(일반학생 92명, 기초수급자 22명)이 참여하게 된다.

캠프는 학년별·수준별 총 9개 그룹으로 1반에 13명 내외로 구성된다.

각 학급에는 원어민 교사 1명과 보조 교사 1명을 배치해 오전에는 교재를 통한 대화식 정규수업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수준별 집중수업과 활동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주말에는 캠프 친구들과 추억을 쌓으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영어스피치 콘테스트와 미니올림픽, 합창 및 뮤지컬 등의 선택수업이 진행된다. 이번 영어캠프 연수비용은 1인당 82만원이며, 전주시가 41만원(50%)을 지원하고 자부담은 41만원(50%)이다. 국민기초수급자가 정 어린이는 전액 무료로 지원된다.

박재열 전주시 교육부무과장은 "이번 영어캠프를 통해 참가 학생들이 영어능력 향상은 물론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고, 진로교육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국제적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 전주시, 새해 첫 일정은 '기업 기(氣) 살리기'로

## 김승수 전주시장, 기업현장 방문으로 새해 업무 돌입

전주시가 기업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기업 기(氣) 살리기로 2017년 정유년 희망찬 새해 첫날을 열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일 시무실을 대신해 팔복동 산업단지 입주기업인 한국CTS(주)(대표 임동욱)를 방문, 근로자를 격려하고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기업 기 살리기 현장방문에 나섰다.

'기업 기 살리기'는 전주를 사람 생태 문화와 따뜻한 일자리가 있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민선 6기 후반기 7대 핵심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기 살리기 프로젝트를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지난 2016년 한해 지역기업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업성장의 걸림돌인 현장 애로사항 해결에 힘써왔던 김 시장은 이날 기업현장을 방문해 근로자를 격려하고 대화하는 것으로 시무실을 대신했다.

이날 김 시장이 방문한 업체는 와이어 없는 신호등과 육교 등 탄소소재를 활용한 도로교통시설물을 제작하는 한국CTS(주)로, 현재 직원 2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업체는 신호등지

우 지주장치 및 가로보에 대한 특허 등록을 가지고 80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임동욱 한국CTS(주)대표는 이 자리에서 "새해 첫날 시장님이 업체를 방문해 주셔서 올 한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서 "기업 기 살리기를 위해 힘써주시는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노력을 통해 장기적인 경제침체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승수 전주시장은 "CTS가 보여준 저력이 시민들에게 큰 희망을 준 것 같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면서 "무엇보다 올 한해 일하시는 모든 직원들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한국CTS(주) 현장방문을 마친 후, 현장시청 기업지원사무소로 자리를 옮겨 직원들을 격려하고 실국장 및 직속부서장 등 전주시 간부공무원들과 기 살리기 및 지원방안 회의를 가졌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들을 위해 지난 해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3억원의 예산으로 기업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에 나선다.



2일 시무실을 대신해 기업 기 살리기 현장방문에 나선 김승수 전주시장이 팔복동 산업단지 입주기업인 한국CTS(주)를 방문, 근로자를 격려하고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공단지역의 청소·교통·도로·광고물 정비 등 공단 환경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공장중축에 따른 조경면적 하향조정 조려 개정 추진 등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중점을 두고 기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 시장은 "전주시는 지역기업들과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고, 실제 기업들이 일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

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말 그대로 불법만 아니면 뭐든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기업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키워서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해당 분야의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우량 기업인 히든챔피언이 몇 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해가 되자"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 도교육청, 드론 기념 촬영후 올해 업무 시작

전라북도교육청 420여명의 직원들이 드론 기념사진 촬영으로 올해 업무를 시작했다.

도교육청은 2일 오전 직원 4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시무식을 갖고 드론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자체 조사결과, 1986년 전북동 청사 낙성식 이후 전체 직원이 참여하는 기념사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전북교육역사서를 가리기 위해 51년 만에 청사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한 것.

이날 시무식에서는 직원들이 각자의 새해 소망을 담은 종이비행기를

날렸으며 직원들이 소장하고 있는 전북교육과 관련 사진을 영상을 시청했다.

또 전북교육에 관한 각계 각층의 바람을 담은 '전북교육에 바란다'의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새해 인사를 통해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녘이 내릴 때에만 날개를 편다는 말이 있다"며 "전북교육이 만들어낸 많은 지혜와 함께 묵묵히 매진하자"고 말했다.

정혜은 기자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 **진안**

공감하는 **진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www.jinanshop.com

# 행복한 설맞이 선물 대잔치

소중한 고객을 위한 진안의 선택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진안고원에서 마이산의 정기를 흠뻑받아 만든 건강한 진안고원 농·특산물을 선물하세요.

수삼 선물세트

진안고원 사과

마이산 반건사

군수품질인증 진안홍삼

진심홍삼주

홍삼절편

NAVER **진안상**

구입문의 **063-433-7247**

전북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56 한방약초센터

보다 자세한 제품은 진안군 전자상거래 '마이산 정기마을' 소평몰(www.jinanshop.com)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료 배송